

광주·대구·대전 ‘글로벌대학’ 힘 모은다

3개 도시 보건대 초광역연합 ‘글로벌대학30’ 본지정 목표 지자체-대학 상호교류 확대·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박차

광주시와 대전시, 대구시가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해 뭉쳤다.

광주시는 대전시, 대구시와 함께 2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공모에 전국 유일 초광역 연합모델 유형으로 신청한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 총장과 광주시·대구시·대전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3개 보건대학교가 연합해 결성한 단일 협치(거버넌스) 사업으로 전라도·경상도·충청도를 아우르는 최우수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전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글로벌대학 예비지정 20개 학교 중 3개 지자체의 대학이 협력하는 초광역 연합모델인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은 대학 혁신의 지평을 과감히 확대하고자 하는 글로벌대학 지정 사업의 취지와 밀접하게 맞아떨어 있어 본지정 여부가 주목된다.

참석자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긴밀

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다짐하고 향후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은 물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와 대학 간 적극 교류·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은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대

학 간 상호교류 확대와 행정·정책적 지원 ▲지역 산업 기반 맞춤형 특성화 인재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달빛 보건연합대학은 ‘새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을 설립해 단일 의사 결정 연합체로 운영(입시·교육과정·학사 등)하고 지역특성화 캠퍼스로 ▲광주보건대=메디휴먼케어 산업중점·늘·돌봄 특화캠퍼스 ▲대구보건대=소재 기반 바이오헬스 웰스케어 특화캠퍼스 ▲대전보건대=디지털·바이오 치료제 산업 활용 바이오·재활 특화

캠퍼스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1의 전문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김동현 대학인재정책과장은 “글로벌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 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광주보건대가 대구·대전 보건대와 함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경기자



글로벌대학30 본지정을 위한 ‘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 업무협약식’이 2일 대구시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 총장과 광주시·대구시·대전시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도, 7급 이하 수직직 해외연수

전남도가 7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기 진작 차원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외 연수 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파견 공무원 620여명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연 120여명이 4~5회에 나눠 해외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연수 대상 공무원들이 무안국제공항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했다. 연수 국가는 무안공항 운항 노선이 있는 몽골·일본·중국 등으로 3박4일 일정이다.

연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1인당 150만원 이내에서 예산으로 지원된다.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에게 시찰 성과 등을 기재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하도록 계획이다. /양시원기자

“장마철 영농 기상정보 수시 확인하세요”

전남농기원, 농작물 관리 요령 발표...피해 최소화 당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돌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어 농작물 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기습적인 날씨 변화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짐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파손 우려가 높다.

2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벼농사는 논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해 주고 많은 비로 비가 물에 잠겼을 경우 물을 댄 다음 새 물로 갈아줘 뿌리의 활력을 높여줘야 한다.

고추, 콩, 참깨 등 밭작물은 침관수 시 서둘러 물을 빼주고 쓰러진 작물은 비가 갠 후 신속하게 세워주며 비가 그친 후 역병, 탄저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방제를 해줘야 한다. 생육이 불량한 작물은 요소 0.2%액(비료 40g, 물 20ℓ)을 잎에 뿌려줘 생육을 도와주면 된다.

배, 사과, 복숭아 등 과수는 과원 내 토사나 부유물을 제거해 주고 노출된 뿌리는 흙으로 덮어주며 유실된 곳은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또한 넘어진 나무는 토양이 마르기 전에 지지대를 이용해 세워주고 갈색무늬병, 탄저병 등 약제를 살포하면 된다.

축사의 경우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시설을 점검하고 환기시설과 가축 분뇨 저장·퇴비시설의 물 빠짐을 수시로 점검해 준다. 또한 사료가 물에 젖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시설하우스는 많은 비로 물이 잠기면 신속히 양수기, 수중 펌프 등을 활용해 물을 빼주고 환기시켜야 한다.

박인구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장마철 많은 비로 농작물·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상정보 수시 확인과 작물별 사후관리 대책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수돗물 안전성 강화

9월까지 19개 시·군 76곳 정수장 수질 검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일 “수돗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19개 시·군 76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수질 확인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수장 수질 확인 검사는 여름철 상수원수의 수온 상승과 장마철 폭우 등으로 야기되는 급격한 수질 변화에 대응, 정수장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9년부터 매년 시·군 해당 부서와 합

동 추진하고 있다. 각 시·군에서 급수 과정에 따라 상수원수와 수돗물을 채취해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먹는물 수질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초과 정수장은 정밀 조사를 통해 시설 개선 조치 후 재검사해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양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수돗물 공급 전 과정 확인 검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마시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여성학실천대학’ 수강생 모집

전남여성가족재단, 페미니즘대학 명칭 변경

전남여성가족재단은 2일 “전남지역 성평등 전문 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남페미니즘대학 사업명을 올해부터 ‘여성학실천대학’으로 변경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학실천대학은 2019년부터 시작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여성학 전문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지역 여성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심축 수업을 위해 기본-심화-전문 단계별 체계적 과정을 100% 야간·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페미니즘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시작으로 개강한 기본 과정은 선택과목 수업을 비롯해 총 11개 과목과 9월 16·23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진행된다. /양시원기자

기본 과정 종료 후 심화 과정으로 오는 8월13일부터 9월3일까지 대증분화를 위한 전남페미니즘대학 사업명을 올해부터 ‘여성학실천대학’으로 변경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강좌는 9월24일부터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 (<https://www.jwomen.or.kr>)에서 가능하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페미니즘은 성별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근절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운동”이라며 “여성학실천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고 사회나 가정에서 서로 존중해 성별차별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전남 귀어학교 교육생 27명 모집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일 “귀어를 희망하는 잠재 어업인이 귀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수산 기술까지 습득하도록 ‘제11기 전남 귀어학교 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교육생 2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 희망자가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 기술교육 기관이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 귀어 희망자로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해 최종 27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방 강진지원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교육생은 오는 8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8주간 강진지원 내 전남 귀어학교 생활관에서 숙식하며 교육받는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교육 수수료 일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